

## 기도함으로 섬김

어떤 것을 공급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는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령 어떤 자매는 네 명의 어린 자매들을 기도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럴 때 그 자매는 어린 자매들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지 않고, 다만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 자매는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 다만 기도와 간구로써, 심지어 필사적인 간구로써 그들을 섬긴다. 이러한 기도가 일종의 섬김이다.

상해에서 나이 많은 자매들이 이런 식으로 봉사하였다. 그들은 어린 자매들뿐 아니라 많은 형제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였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자주 집회 때 일어나, 해서는 안될 말을 하였다. 봉사하는 자매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만 기도할 부담을 취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였다. 이런 것이 바로 그 형제를 기도로 공급하며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형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돌이키게 했는지 간증했다. 자매들의 기도는 그 형제를 섬기는 것이었으며 주님께서 그 형제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드린 것이었다.

이렇게 기도로 섬겼던 자매들은 또한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결혼 문제를 위해 기도로써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경우에는 자매들이 함께 모여 한 형제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였다. 이것이 봉사이다.

많은 경우 자매들은 그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떤 성도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도 하였다. 식사 시간 동안에는 무익한 말이나 한담이나 어떤 문제와 교회 사무 등등에 대한 공허한 이야기들 따위가 없었고, 오직 생명을 공급하는 말로써 그 젊은이들을 온전케 하는 섬김이 있었다. 오늘날 교회 사무에 대해서도 헛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섬기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공론들, 다른 사람들에 관한 쓸모없는 말들은 모두, 하나님의 눈에 단지 한담일 뿐이며 또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자매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

섬기기 위해서는 우선, 말을 멈추기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단순하게 되기를 배우며 말하지 않기를 배우라. 그러나 여러분은 섬기는 영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교통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이러한 부담과 섬기는 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섬기는 일에 밤낮으로 완전히 점유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형제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너무나 많은 자매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장로들도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한다. 일도 사역도 다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하다.

자매들이 주님께 진지하다면, 그들은 수많은 것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주님과와의 진지한 교통은 여러분 안에 섬기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수고해야 하며, 섬겨야 하고, 좋은 일꾼(여집사)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행해야 한다.

나는, 주님께서 이러한 교통을 통하여 자매들 모두에게 부담을 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 주셨다고 믿는다.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2 장은 마리아의 집에서 당시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집회가 있었다고 말한다. 성경에는 기도 집회를 한 다른 장소가 언급되지 않는다. 마리아의 집에서 한 기도 집회는 섬김이었다.

여러분 자매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면, 말하지 않기를 배우고 기도할 부담을 취해야 한다. 참으로 부서진 생명이 있어야 할 필요를 여러분이 보게 될 때, 여러분은 그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네다섯 명, 또는 여덟에서 열 명의 자매들과 함께 그러한 부담을 취하고서 함께 모여 그 목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참으로 부서진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한 형제가 교회에 어려움이 되거나 또는 한 자매가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야 한다. 두세 명의 성도들과 함께 부담을 갖고 기도하여 그 성도를 섬겨야 한다. 여러분이 이와 같다면, 여러분이 오늘날의 뽀뽀이다. 그럴 때 교회는 최상의 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바울이 로마서 16 장에서 천거한 뽀뽀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자매들의 부담이 되어야 하며, 자매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는 위치를 참으로 가져야 한다. 자매들이 이러한 부담을 취하고 이 부담 안에서 주님께 신실할 때, 형제들이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바로 자매들이 할 수 있게 된다. 참으로 많은 것들에서 자매들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밝혀 주시길 원한다. (교회 생활 안에서 섬기는 자매들)